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신약에서 괄호의 필요성과 유용성 검토

— 역주, 방백, 근거 제시의 기능을 중심으로 —

조재천*

1. 들어가며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 신약에 나오는 괄호는 총 57쌍이다. 그중 14구절에 나오는 “(없음)”은 일종의 사본상 이문을 표시한 것이다. 마태복음 6:13 역시 사본상 이문에 속한다(사본상 이문의 표시와 관련해서는 별도 연구가 필요하다). 나머지 42개에는 괄호가 양쪽에 쳐지고 그 안에 두 단어 이상의 구나 절, 문장이 들어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괄호 어구’라고 부를 것이다. 괄호 어구의 길이는 대개 한 절보다 짧지만, 어떤 괄호 어구는 한 절을 차지하기도 하고(예를 들어, 눅 24:10), 두 절에 걸쳐 있거나 두 절 전체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막 7:3-4).

괄호 어구는 일종의 본문 부속(paratextual) 요소이다.¹⁾ 그리스어 신약 성

* 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고대 기독교와 유대교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전주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 신약학 부교수. jcho@jj.ac.kr.

1) 이 연구가 대한성서공회에서 진행하는 『개역개정』의 재개정 작업의 필요에 의해 촉발된 것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세계 성서학계의 최신 트렌드에 부합한다. 최근 세계 성서학계에서는 성서 본문의 필사나 인쇄 과정에 부가된 부속 요소들(paratextual features)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S. E. Porter, C. S. Stevens, and D. I. Yoon, eds., *Studies on the Paratextual Features of Early New Testament Manuscripts: Texts and Editions of the New Testament* (Leiden: Brill, 2023); G. Goswell, *Text and Paratext: Book Order, Title, and Division as Keys to Biblical Interpretation* (Bellingham: Lexham Academic, 2023); G. V. Allen, *Manuscripts of the Book of Revelation: New Philology, Paratexts, Recep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A. den Hollander, U. Schmid, and W. Smelik, eds., *Paratext and Megatext as Channels of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the Textual Markers of Contextualization* (Leiden: Brill, 2003).

서 원 본문에는 괄호가 없었다. 필사와 인쇄 과정에서 독자가 더 쉽고 정확하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덧붙여진 많은 요소 중 하나가 괄호이다. 그러다 보니 필사본, 인쇄본, 그리고 역본마다 괄호의 위치, 범위, 모양이 다 다르다. 최신 비평 본문인 NTG²⁸에도 본문 내에 괄호(즉, 소괄호), 줄표, 대괄호, 겹 대괄호 등이 쓰였다. 『개역개정』의 괄호 어구 개수(42개)는 다른 국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영역어나 독일어 역본들에 비하더라도 꽤 많다(상세한 비교는 <부록>을 참조할 것). 같은 구절, 같은 어구에 역본마다 줄표를 쓰기도 하고 괄호를 쓰기도 한다. 『개역개정』의 경우 줄표는 쓰이지 않았고 괄호만 쓰였다.

괄호가 비록 본문은 아니지만, 인쇄된 성서 본문에 괄호가 함께 섞이게 되면 그것은 본문처럼 간주되거나 느껴진다. 번역자들이 괄호나 줄표를 구분 내키는 대로 붙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괄호를 어디에, 어느 만큼 칠 것인지는 일종의 주석적 결정이다. 본문을 주석한 결과 괄호가 본문의 의미를 더 쉽고 정확하게 밝혀준다고 번역자가 판단한 것이다. 당연히 이 지점에도 ‘번역은 반역(反逆)’이라는 격언이 작동한다. 번역자의 의도나 희망과 달리, 괄호가 본문의 의미를 가리거나 왜곡할 위험이 상존한다. 한국 교회가 널리 사용해 온 『개역개정』의 괄호 어구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그 필요성과 유용성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원론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전제, 혹은 현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원 본문이라는 개념, 비평 본문의 개념과 현실, 그리고 우리말 어문 규정이라는 현실에 대해 논할 것이다. 다음으로 『개역개정』의 괄호 어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추적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42개 괄호 어구에 대한 개별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이 논문에서는 그중 29개를 먼저 다루고 13개는 다른 논문에서 논의할 것이다). 각 괄호 어구가 그것을 둘러싼 문맥에서 어떤 구문론적 기능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다섯 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범주적 특징들을 서술할 것이다. 개별 어구들을 검토할 때도 근접 문맥과 광역 문맥에서 그 어구가 수행하는 구문론적, 수사적 기능이 무엇인지 밝히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아울러, 『개역개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전 국역본들, NTG²⁸, 다른 세 국역(『공동』, 『새번역』, 『새

2) B. Aland et al. eds., *Novum Testamentum Graece, Based on the Work of E. and E. Nestle*, 28th Revised Edition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이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2025년 7월 현재 새로운 네스틀레-알란트 판본(제29판)이 출판 예고되었다. NTG²⁹와 동일한 본문을 담고 있는 *The Greek New Testament, Sixth Revised Edition (GNT⁶)*은 이미 출판되었다. NTG²⁹/GNT⁶은 마가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에 대비평본(*Editio Critica Maior*)을 반영한 새로운 본문을 채택했고 나머지 부분은 NTG²⁸과 동일하다.

한글』), 그리고 세 개 영역본(NIV, ESV, NRS Updated Edition[2021, 이하 NRSUE])과 대조하면서 괄호나 줄표가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각 괄호 어구에서 괄호를 유지해도 되는지, 그 범위와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괄호를 지우는 게 더 나을지를 판단한 다음, 그것을 종합할 것이다.

2. 『개역개정』 괄호 어구의 연원(淵源)과 현황

2.1. 괄호 어구 검토에서 고려되어야 할 원론적 전제들

괄호 어구는 기본적으로 삽입 어구이다. 서사나 묘사, 또는 논증의 흐름 중간에 “앞말에 대한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임을 나타내 때” 괄호, 즉 소괄호를 쓴다.³⁾ 하지만 생각의 흐름을 잠시 벗어나서 설명하고 내용을 보충한다고 해서 항상 괄호 어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말을 보충하고 설명하기 위해 원래 문맥 흐름을 끊고 괄호와 함께 중간에 그 어구를 끼워 넣어야 하는지 아닌지는 저자의 선택에 달렸다. 그래서 괄호 어구의 위치와 길이에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괄호 어구는 단지 문체의 문제가 아니다. 저자의 주제 의식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이며, 따라서 저술의 일부분이다. 그 저술을 출판하거나 인용하는 사람이 괄호를 함부로 빼거나 더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성서 역본은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다. 신약 원 본문과 상대적으로 더 가깝다고 인정되는 파피루스나 대문자 사본들에는, 괄호를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 부호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저자들의 자필 원고(autograph) 역시 마찬가지로 사정이었음이 거의 확실하다. 저자가 쓰지 않은 괄호를 역자가 덧붙이는 행위는 자칫 번역의 경계를 넘어 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독자를 위해 성서를 번역하면서 문장 부호를 전혀 쓰지 않을 수 있는가?⁴⁾ 현대 성서 역본에 문장 부호를 쓰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

3) 국립국어원, 『문장 부호 해설』 (서울: 국립국어원, 2014[전자매체본, 2015]), 43,

https://www.korean.go.kr/front/etcData/etcDataView.do?mn_id=46&etc_seq=431(2025. 7. 30.).

4) 『개역개정』에 마침표, 쉼표, 따옴표, 물음표, 느낌표 등 주요한 문장 부호가 쓰이지 않은(하지만 괄호는 쓰였다!) 일차적 이유는 그것이 대본으로 삼은 『개역한글』, 『성경 개역』,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경전서』(1911)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성경전서』 번역자들이 문장 부호를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세로쓰기라는 특성, 그리고 구한말 언문 소설의 문

만 그 빈도와 종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독자가 성서 문장을 읽고 그 기본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호만, 필요한 곳에만 붙여야 한다. 즉, 붙여도 되고 붙이지 않아도 되는 곳에는 붙이지 않는 것이 좋다. 괄호도 거기 해당한다.

괄호 어구에 대한 원론적 논의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표준 비평 본문의 권위이다. 오늘날 신약성서를 현대어로 번역할 때 거의 예외 없이 사용되는 대부분은 NTG²⁸이다.⁵⁾ NTG²⁸에는 마침표, 쉼표, 가운뎃점(콜론 또는 세미콜론 대응), 그리고 세미콜론(물음표 대응)이 사용되었으며, 소괄호와 줄표, 대괄호, 그리고 겹 대괄호도 나온다. 그 부호들은 장절 번호, 단락 구분과 함께 어우러져서 NTG²⁸ 본문을 구성하는 내재적 요소들이다. 만약 현대 성서 번역자들이 사본상 이문들에 대해 일일이 독자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NTG²⁸의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문장 부호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본문은 NTG²⁸을 사용하되 문장 부호는 국역만의 독자적 기준에 따라 그 종류와 사용 지점을 결정할 수 있는가? 문장 부호가 본문의 내재적 요소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NTG²⁸과 다른 문장 부호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를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

괄호와 관련된 세 번째 고려 사항은 우리말 어문 규정이다. 현행 어문 규정에는 문장 부호 항목이 있고 그 안에서 괄호를 다룬다. 괄호에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세 종류가 있다.⁶⁾ 이 중 성서 국역과 약간이라도 관련이 있는 것은 소괄호와 대괄호의 일부 기능이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의 설명은 괄호의 다양한 쓰임을 망라한(exhaustive) 것이 아니다. 또, 설명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른 종류의 괄호 용법들 사이에 차이가 모호한 것도 있다. 『개역개정』에 쓰인 소괄호와 대괄호 용례 중에도 현행 어문 규정과 맞지 않는 점이 있다.⁷⁾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비평 본문(NTG²⁸)

체와 인쇄 방식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5) 세계 성서학계에서 비평 본문으로서 네스틀레-알란트 본문의 권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최근 M. W. Holmes ed., *The Greek New Testament: SBL Editio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0)이나 THGNT같은 대안적 본문들이 출판되기도 했다.

6) 먼저, 소괄호는 (1)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2)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3) 생략할 수 있는 요소임을 나타낼 때, (4) 회곡 등 대화를 적은 글에서 동작이나 분위기, 상태를 드러낼 때, (5) 내용이 들어갈 자리임을 나타낼 때, 그리고 (6) 항목의 순서나 종류를 나타내는 숫자나 문자 등에 쓴다. 다음으로, 중괄호({ })는 (1)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 (2) 열거된 항목 중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보일 때 쓴다. 마지막으로, 대괄호([])는 (1)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의 괄호로 쓰고, (2)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 그리고 (3)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나 논평 등을 덧붙일 때 쓴다. 국립국어원, 『문장 부호 해설』, 43-51.

7) 예를 들어, 막 16:9-20; 눅 24:51, 52; 요 5:3-4; 7:51-8:10; 롬 3:5에 쓰인 대괄호는 어문 규정에

의 문장 부호를 따르고자 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질 것이다. 따라서 어문 규정을 되도록 따르되, 성서 번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정을 벗어나거나 규정에 없는 용법을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어문 규정과 다른 용법에 대해서는 일러두기나 서문에 범례를 밝히면 된다.

지금까지 괄호 어구에 대해서 세 가지 원론적인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신약성서 원 본문에 괄호 어구가 없었다는 사실과 현대 역본 독자들을 위해 괄호를 포함한 문장 부호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현실 사이 중용(中庸)의 문제이다. 둘째, 고유한 문장 부호 시스템을 가진 최신 비평 본문의 권위 문제이다. 셋째, 현행 우리말 어문 규정의 문장 부호 체계만으로는 성서 번역에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어문 규정보다 넓은 문장 부호 체계가 필요한 현실의 문제이다. 아래에서 개별 괄호 어구를 검토할 때, 이상 세 요소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결론과 제안에 반영할 것이다.

2.2. 괄호 어구의 연원

『개역개정』에 나타나는 괄호 어구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역본으로서 『개역개정』의 성격을 짚어보려고 한다. 『개역개정』은 이름 그대로 ‘개역의 개정판’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1961년 출간된 『개역한글』을 대본으로 삼았다. 하지만 『개역한글』 역시 전면적으로 새로운 역본이 아니라 1938년 출간된 『성경 개역』을 대본으로 삼은 개정역이다. 따라서, 『개역개정』을 『성경 개역』의 개정역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⁸⁾

괄호 어구가 처음 쓰인 국역은 『성경 개역』이며, 거기 쓰인 괄호 어구는 사본상 이문을 표시하는 “(없음)”을 포함해서 총 57개였다. 그것은 고스란히 『개역한글』로 넘어왔다. 하지만, 『개역한글』에서 『개역개정』으로 올 때는 세 군데 변경이 가해졌다. 57개 중 하나의 괄호가 제거되었고(행 13:19 하), 하나가 추가되었다(행 24:6상-8하). 또 한 괄호 어구는 괄호의 범위가 더 길어졌다(골 2:21-22상). 결과적으로 이전 국역과 『개역개정』의 괄호 어구 총수는 동일하다. 변경된 세 개를 제외하고 『개역개정』의 모든 괄호 어구는 전부 『성경 개역』에서 이어받은 것이다.

규정된 대괄호 용법과 무관하다.

8) 한편, 최초의 ‘위원회역’인 『성경전서』(1911)와 『성경 개역』의 관계는 좀 더 복잡적이다. 『성경 개역』 신약은 『성경전서』와 다른 그리스어 대본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후자는 English Revised Version(이하 ERV, 1881)의 저본인 Palmer 판을 대본으로 삼았고, 『성경 개역』의 대본은 NTG¹²⁾이었다. 『성경전서』와 『성경 개역』의 전반적인 성격과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아무튼 이 연구는 괄호 어구에 한정되므로 괄호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성경전서』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성경 개역』 개역자들은 57쌍의 괄호를 어떻게 성서 본문에 집어넣을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독자적인 주석적 판단에 따라 고안해 내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개역 작업에 대본으로 활용했던 그리스어 원문이나 이전에 출판된 중국어 혹은 영어 역본들로부터 따오는 것. 개역자들의 증언이나 공식 문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 『성경 개역』의 대본에 관해서는 여러 사료를 통해 어느 정도 확실한 내용이 알려져 있다. 그리스어 대본으로는 NTG¹²(1923), 영역본으로는 당시 영미권에서 가장 권위 있었던 KJV(1611)와 English Revised Version(이하 ERV, 1881)가 개역자들의 책상 앞에 있었을 것이다.⁹⁾

일단, 『성경 개역』 괄호 어구가 이 세 대본(중 하나, 둘 혹은 셋 모두)에도 괄호나 줄표가 붙어서 나타난다면, 개역자들이 그 대본의 영향을 받아 괄호를 붙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세 대본과 『성경 개역』을 대조해서 괄호 어구의 공유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없음)” 구절을 제외한 『성경 개역』 괄호 어구 42개 중, KJV와 ERV에도 나타나는 것은 각각 24개, 29개이다. 두 영역본 중 적어도 하나와 겹치는 비율은 74%(31개)이다. 한편, NTG¹²에 나오는 괄호 어구 중 7개, 줄표 어구 중 9개가 『성경 개역』의 괄호 어구와 겹친다. 이것을 모두 합쳐서 『성경 개역』이 이전 역본 또는 비평 본문의 괄호 및 줄표 어구와 겹치는 비율은 79%(33개)이다.

이 통계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개역자들은 본문뿐 아니라 괄호의 사용에 있어서도 대본의 영향을 받았다. 둘째, 개역자들이 대본의 괄호 어구를 ‘맹목적’으로 답습한 것 같지는 않다. ERV의 괄호 어구 중 『성경 개역』이 따르지 않은 것도 있다.¹⁰⁾ 개역자들 나름의 독자적 검토를 거쳐

9)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 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171; 옥성득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3권-밀러 서신』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500-503; E. Nestle, *Novum Testamentum Graece cum apparatu critico ex editionibus et libris manu scriptis collecto. Editio duodecima recognita* (Stuttgart: Privilegierte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923). 성서 영역본들의 서지사항은 생략함. 중국어 역본들에는 괄호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우리 논의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두 영역본 중에서는 KJV보다는 ERV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성경전서』(1911)에서부터 KJV와 ERV 본문이 다를 경우 언제나 ERV가 선호되었다. 한편, 1911년 이후 번역위원회는 곧바로 개역자 회로 전환되었다. 이후 개역 과정에 일본어 역본이 사용되었는지, 그랬다면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밀러(H. Miller) 서신과 성서위원회 회의록 등 일차 자료 상에는 어디에도 일본어 역본의 사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개역자회는 선교사들이 주축을 이루었고, 독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두 명의 한국인들이 개역자들의 독회에 참석했다 라도, 그들이 일본어 역본을 근거로 특정 구절의 개정을 선교사들에게 제안하거나 설득하려고 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10) 예를 들어, ERV 눅 2:23에는 괄호가 있지만 『성경 개역』에는 없다.

취사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성경 개역』 괄호 어구 42개 중 그리스어 본문이나 영역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9개이다(막 15:22; 눅 24:10; 요 19:13, 17; 20:9; 롬 2:14-15; 고전 7:10, 12; 계 20:5). 이 9개 괄호의 저작권은 개역자들에게 있다. 물론, 기존 괄호 어구들을 참조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성경 개역』에 처음으로 괄호가 붙은 마가복음 15:22, “예수를 끌고 끌고다라 하는 곳(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의 경우, 요한복음 1:38의 괄호 사용을 기준으로 삼았을 것이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괄호 사용에 관해서 『성경 개역』 개역자들이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신약 전체에서 앞말의 주석이나 보충 설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삽입구들은 많다. “번역하면 …”과 같이 유형화된 어구도 마찬가지로 있다. 하지만 개역자들은 삽입구처럼 생긴 모든 부분에 괄호를 붙이지는 않았다. 그들끼리 공유했던 어떤 내부적 원칙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 길은 없다.

요약하면, 『성경 개역』에 처음 도입된 괄호 어구가 거의 그대로 『개역개정』까지 이어졌다. 『성경 개역』 개역자들은 괄호 어구 42개 중 33개를 이전 역본이나 그리스어 비평 대본에 빚졌다. 나머지 9개는 개역자들의 독자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새로 만들었다.

3. 『개역개정』 신약 괄호 어구 분석

이제 개별 괄호 어구를 검토할 차례다. “(없음)”을 제외한 괄호 어구 42개는 모두 삽입구라고 볼 수 있다. 전후 문맥의 흐름을 잠시 멈추게 하고 들어와서 그 문맥에서 벗어난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때 ‘어떤 것’은 앞말에 대한 주석이나 보충 내용이다. 그 내용의 성격, 그리고 앞말과의 논리적, 의미론적 관계를 따져 범주화하면 역주(譯註), 방백, 근거 제시, 부대 상황 서술, 그리고 세부 사항 서술 등 다섯 가지이다. 각 범주에 든 괄호 어구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 『개역개정』 신약의 괄호 어구 목록

범주	괄호 어구
역주 (10개)	막 15:22중; 요 1:38하, 41하, 42하; 9:7중; 19:13중; 19:17중; 20:16하; 행 4:36중; 13:8중

범주	괄호 어구
방백 (4개)	마 24:15하; 막 13:14중; 딤후 1:18상; 히 11:38상
근거 (15개)	막 7:3-4; 눅 8:29하; 눅 23:51상; 요 7:39하; 20:9하; 행 1:18-19; 롬 2:14-15; 골 2:21-22상; 살후 1:10하; 딤후전 3:5; 히 7:11중, 19상, 21; 10:8하; 벧후 2:8
부대상황 (10개)	요 6:23; 고전 7:10중, 11상, 12중; 고후 12:2하, 3하; 갈 2:6중; 엡 2:5하; 골 4:10하; 계 20:5상
세부사항 (3개)	눅 24:10; 요 4:2; 요 7:22중

우리는 일단 이 논문에서 역주, 방백, 그리고 근거 제시 기능 범주에 든 29개의 괄호를 검토할 것이다. 나머지 13개는 차후 별도 논문에서 다루겠다.

3.1. 역주(譯註)로서의 괄호 어구(10개)

신약 저자들은 모두 그리스어로 썼지만, 그들이 묘사하는 개념이나 이름 중에는 본래 히브리어나 아람어인 단어들이 많았다. 인명이나 지명, 민족이나 국가명 등은 대부분 그리스어로 음역했고,¹¹⁾ 고유명사 외에도 번역 없이 음역만으로 표현한 경우들이 있다.¹²⁾ 그런데 간혹 음역과 번역을 병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스어 독자들에게 생소하더라도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소리 나는 대로 써 주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구문이 관계대명사절이다. 앞말을 받는 관계대명사를 내세우고 그 절 안에 “번역하다”(μεθερμηνεύω나 ἑρμηνεύω)의 수동태나 계사(ἔστιν)를 써서 뜻풀이를 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역주(譯註)에 해당한다.

그리스어 관계대명사절에 상응하는 구문적 요소가 없는 우리말에서 관계대명사절을 번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문이 괄호 어구이다. 관계대명

11) 국역 성서에서는 이들 음역된 고유명사를 시각적으로 구분해서 인쇄하는 전통이 있다. 『성경 개역』은 인명에는 한 줄로, 그 외 지명과 민족명 등은 두 줄로 밑줄(오른쪽 줄)을 쳤고, 『개역한글』부터는 글자체를 본문의 명조체와 구분되도록 고딕체로 써서 표현했다.

12) ‘아멘, 호산나, 할렐루야’ 같은 짧은 예전적 어구들 외에도 구약과 초기 유대교 신앙에서 유래한 ‘사밧, 파스카, 고르반, 만나, 호산나, 아멘, 할렐루야, 사바웃(롬 9:29; 약 5:4), 게헨나, 사탄’ 등이 번역 없이 음역만 제시되어 있다. 시간 표현이나 도량형 단위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했던 ‘아바, 만나, 게헨나, 사탄, 라가’ 같은 용어들이다. 이를테면, 유대 인명이나 지명, 혹은 짧은 예전적 어구 같은 것들이다.

사절을 독립된 문장으로 옮겨서 괄호 안에 넣은 다음 선행사 뒤에 붙여 두면 그리스어 원문의 어순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이 괄호 어구의 최대 장점이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38하반의 원문과 역본 넷을 비교해 보자.

NTG ²⁸	… οἱ δὲ εἶπαν αὐτῷ· ῥαββί, ὃ λέγεται μεθερμενεύομενον διδάσκαλε, ποῦ μένεις;
NRSUE	… And they said to Him, “Rabbi (which translated means Teacher), where are You staying?”
『개역개정』	…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성경』(2005)	…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새한글』	…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랍비님,” 이 말은 번역하여 옮기면 ‘선생님’이다.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¹³⁾

앞서 말한 괄호 어구의 장점을 잘 살린 번역은 NRSUE다. 그리스어 원문과 마찬가지로 “랍비” 바로 뒤에 그것의 번역을 쓰고 질문을 이어간 것이다. 『개역개정』은 원문에서 관계대명사절의 위치가 아니라 문장이 끝나고 나서 괄호 어구를 넣었다. 그럴 바에는 『성경』(2005)처럼 괄호를 풀고 쓰더라도 의미상 차이가 별로 없다. 『새한글』은 관계대명사절을 괄호 없이 별개의 문장으로 옮겼지만, 그것을 문장 중간에 끼워 넣음으로써 주문장의 흐름을 어색하게 만들었다. 『개역개정』의 괄호를 유지하려면 NRSUE처럼 원문의 어순에 부합하도록 위치를 옮겨야 한다(대안 1). 『개역개정』의 어순을 유지한다면 괄호는 지위도 무방하다(대안 2).

대안1	… 이르되 랍비여(번역하면 선생이라)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대안2	…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 구절처럼, 『개역개정』에서 번역을 설명하기 위한 괄호 어구는 총 10개이다. 그중 8개는 아람어나 히브리어 단어의 음역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

13) 『새한글』의 이 번역은 원문의 어순은 지켰지만, 중간에 들어가 쉼표의 쓰임이 어색하다.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게 좋겠다: …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랍비님!” 이 말은 번역하여 옮기면 ‘선생님’이다.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서 괄호 안에 그리스어로 번역을 제공한다: “골고다 > 해골의 곳”(막 15:22 중), “랍비 > 선생”(요 1:38하), “메시아 > 그리스도”(요 1:41하), “게바 > 베드로”(요 1:42하), “실로암 > 보냄을 받았다”(요 9:7), “랍오니 > 선생님”(요 20:16중), “바나바 > 위로의 아들”(행 4:36중), “엘루마 > 마술사”(행 13:8중). 반대로 번역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괄호 안에 그것의 원래 셈어 단어를 음역하는 구절이 있다. 요한복음의 수난 기사에 등장하는 단어 2개가 그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돌을 깐 뜰 < 가바다”(요 19:13중), “해골 < 골고다”(요 19:17중).

앞서 예로 든 요한복음 1:38하반의 경우처럼 기존 『개역개정』의 괄호 어구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

- 막 15:22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 예수를 끌고 골고다(번역하면 해골의 곳)라 하는 곳에 이르러
- 요 1:41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 우리가 메시아(번역하면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 요 1:42하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 장차 게바(번역하면 베드로)라 하리라 하시니라
- 요 9:7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 실로암(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 요 20:16중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 히브리 말로 랍오니(선생님이라는 말) 하니

이렇게 수정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괄호를 풀고 본문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괄호의 유무가 의미 차이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괄호를 지우는 편이 더 낫다.

첫째, 원 본문(그리스어 비평 본문)에 이 10구절 어디에도 괄호가 사용되지 않았다.

둘째, 일관성 문제이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3, “...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에 괄호가 없다.¹⁴⁾ “달리다굼”(막 5:41), “고르반”(막 7:11), “에바다”

14) 이 어구에도 괄호를 붙이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겠다: “...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막 7:34),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막 15:34; 마 27:46), “다비다”(행 9:36)가 언급된 구절들도 마찬가지다.¹⁵⁾ 역주 기능을 하는 삽입구에 일관되게 괄호를 붙이지 않을 바에는 기존 괄호 어구들에서 괄호를 지움으로써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누구의 역주인지 혼동될 소지가 있다. 어떤 독자들은 “(번역하면 ~이다)”라는 괄호 어구를 신약 저자의 역주가 아니라 번역자의 역주로 오해할지 모른다. 성경 외 일반 외국 원서를 번역한 책에서 특정 단어를 음역한 후, 우리말 뜻이나 간단한 보충 설명을 제시하기 위해 괄호를 쓰곤 한다. 그런 관례에 익숙한 독자가 『개역개정』의 괄호 어구를 번역자의 역주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3.2. 방백으로서의 괄호 어구(4개)

주로 연극에서 등장인물이 관객에게만 들리게 하는 대사를 ‘방백’(傍白, aside)이라고 한다. 무대에 함께 있는 다른 인물들은 이 대사를 듣지 못한 것으로 설정된다. 방백은 극적 효과를 위해 사용되며, 인물의 내면 심리나 상황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신약성서에는 희곡 장르가 들어 있지 않지만, 『개역개정』 신약에 쓰인 괄호 어구 중 일부는 ‘방백’과 같은 기능을 한다.

3.2.1. 마태복음 24:15하반 // 마가복음 13:14중반

먼저, 마태복음 24:15와 마가복음 13:14의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는 명백한 방백이다. 두 복음서 구절은 이른바 ‘감람산 강화’ 속에 들어 있는 공관 병행(synoptic parallel)이다.¹⁶⁾ 이 구절에는 예수의 ‘말’과 복음서 저자의 ‘글’이 겹쳐 있다. **서사적** 정황에서, 서기 30년경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한다. 반면, **역사적** 정황 가운데 있는 복음서 저

15) 『새번역』과 『공동』의 경우에도 일관성 없기는 마찬가지다. 『개역개정』의 역주 기능 괄호 어구 10개 중 『새번역』은 6개를, 『공동』은 5개를 공유한다. 왜 나머지 것들에는 괄호를 붙이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반면, 『새한글』은 모든 경우에 괄호 없이 별개의 문장으로 풀어서 옮김으로써 일관성을 확보했다.

16) 주석가에 따라 ‘감람산 강화’ 전부 혹은 일부를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으로 보기도 하고, 서기 66-70년에 발발했던 유대 전쟁과 예루살렘 파괴를 가리키는 사후 예언(vaticinium ex eventu)으로 보기도 한다. 특히 ‘멸망의 가증한 것’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J. Marcus, *Mark 8-1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889-891; A. Y. Collins, *Mark: A Commentary, Hermeneia: a Critical and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608-611.

자는 자기 글을 읽게 될 독자를 향해 쓴다. 이 겹침을 풀어내서 구분해 주는 것이 괄호의 역할이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는 감람산에서 예수가 하신 말씀이 아니다. 만약 『개역개정』에서 괄호를 제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독자들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를 예수가 자신들에게 하는 말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오해일까? 복음서를 포함해서 성서의 궁극적인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적 전체 위에서는 이 어구가 예수의 말씀(*ipsissima verba*)인지 아닌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모든 구절이 그분의 뜻을 반영한 말씀이다(*ipsissima vox*). 그런 의미에서 여기 붙은 괄호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만약, 역사적 예수의 말씀을 엄밀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해서, 복음서 저자의 목소리임이 분명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에 꼭 괄호를 붙이고자 한다면, 그 원칙을 복음서 전체에 철저하고 일관되게 견지해야 할 것이다. 복음서 저자들은 일반 독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서사적 상황을 벗어나서 독자를 향해 직접 말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 주석가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와 니고데모의 대화가 끝나는 시점에 복음서 저자가 끼어들어서 그 대화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본다. 복음서 저자의 목소리가 시작하는 지점이 3:16이든 그 이전이든(11절의 “우리”와 “너희”), 3:21까지 이어지는 부분은 서사 화자(역사적 예수)와 구별되는 실제 화자(복음서 저자)가 독자에게 하는 말이며,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방백이다. 위 두 구절에서 방백을 괄호 속에 넣어야 한다면 요한복음 3:16 이하도 넣어야 일관된다. 따라서, 번역자가 임의로 방백이라고 판단한 곳에 선택적으로 괄호를 붙이기보다 일괄적으로 괄호 없이 본문으로 통합시키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마태복음 24:15와 마가복음 13:14 둘 다 KJV와 ERV에서 괄호를 가지고 있다. 모든 현대 영역본도 마찬가지다. NTG²⁸에는 두 구절에 괄호가 없다. 국역 중 『새한글』은 두 구절 모두 괄호 없이 본문에 통합시켰고, 『새번역』과 『공동』은 두 구절 공히 괄호를 붙여서 번역했다.

3.2.2. 유사-방백 구절: 디모데후서 1:18상반; 히브리서 11:38상반

명확히 방백은 아니지만 방백의 범주에 포함할 만한 두 개의 괄호 어구가 있다. 디모데후서 1:18상반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다가 오네시보로를 거론하기 시작한다. 그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로 바울을 자주 찾아왔다(딤후 1:16-17). 또 그는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다(18하반절). 모범적인 제자 오네시보로에 대한 애뜻하고 감사

한 마음을 축복의 기원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18상반절이다. 이 기원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아니며,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멈추게 하고 끼어들어 왔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의 기도라기보다 오네시보로의 믿음을 칭찬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히브리서 11:38상반은 믿음의 영웅록의 한 대목이다. 저자는 구약의 저명한 신앙 위인들을 하나씩 칭송했고, 마무리 부분에서 익명의 신앙인들, 특히 온갖 박해를 감수하며 순교한 이들을 거론한다(히 11:37). 그리고 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라는 관계대명사절을 집어 넣었다(히 11:38상). 이것은 저자가 그들의 신실함을 직접 칭송하는 말이며, 여기서 ‘세상’은 저자 자신과 독자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포함한 역사 전체를 가리킨다. 즉, 성서 위인들의 상황에서 히브리서 독자들의 상황으로 확장된 것이다.

위 두 괄호 어구는 엄밀히 말해서 방백은 아니다. 방백의 기본 성격은 한 등장인물이 다른 인물과 상호 작용에서 잠깐 벗어나 관객을 향해 말하는 것이다. 이 두 구절에서 화자는 독자와 나누던 대화의 주제와 방식에서 잠시 벗어나 특정 대상을 칭송한다. 다만, 주된 문맥으로부터의 단절의 강도나 주제적 이탈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 두 구절의 경우 영역본 ERV에 이미 괄호가 붙어 있다. 따라서 『성경 개역』 개역자들이 ERV의 괄호를 답습했을 수 있다. NTG²⁸을 포함해서 역본 대부분이 이 두 구절에 괄호를 붙이지 않았으며(ESV와 NRSUE에만 줄표 사용), 괄호가 없어도 별 어려움 없이 독해가 가능하다.

3.3. 이유 또는 근거 제시를 위한 괄호 어구(15개)

서사 또는 논증이 전개되는 중에 잠깐 멈춰서 어떤 사건, 상황에 대한 논리적, 역사적 근거를 대기 위해 짧은 설명을 보충해야 할 때가 있다. 그 설명을 괄호 안에 넣어 주면 시각적으로 주문장과 구분이 되기 때문에, 독자가 주문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잠시 끊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개역개정』의 42개 괄호 어구 중 15개가 이런 기능을 한다(막 7:3-4; 눅 8:29하; 눅 23:51상; 요 7:39하; 요 20:9하; 행 1:18-19; 롬 2:14-15; 골 2:21-22상; 살후 1:10하; 딤펢전 3:5; 히 7:11중, 19상, 21; 10:8하; 벧후 2:8).

3.3.1. 마가복음 7:3-4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식사하게 되었다. 그들은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보았다(2절). 마가는 이 지점에서 서사적 정황을 잠시 빠져나온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식사를 비롯한 일상생활의 여러 국면에서 정결례를 행하는 상황을 설명한다(3-4절). 이 설명은 분명 서사의 일부가 아니며 서사 흐름을 방해하는 성격이 있다. 그래서 괄호로 묶을 만하다. ERV에는 이 두 절에 괄호가 없지만 NTG²⁸에 줄표로 묶여 있으며, 『새번역』과 『새한글』에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영역본은 이 두 절을 괄호 안에 넣었다.

단, 이 두 절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부정함을 ‘본’ 사건에 대한 설명이기보다, 이어지는 5절에서 예수를 붙잡고 제자들의 부정을 문제 삼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자 근거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2절에서 3절 사이에는 단절이 느껴지지만 4절에서 5절 사이에는 느껴지지 않는다. 따라서 괄호를 풀고 그냥 읽었을 때 오히려 5절이 더 쉽게 읽히는 느낌을 준다. 이 구절에 괄호가 없는 『공동』으로 읽어 보면 이 점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3.3.2. 누가복음 8:29하반

예수는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왔고,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마주친다. 그리고 그를 제압하고 쫓아내려고 하신다(29상반절). 누가는 이 지점에서 서사적 정황을 벗어나서 예수가 오기 전,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겪게 한 참혹한 일들을 잠깐 서술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가 귀신과 나누는 대화로 다시 돌아온다(30절). 29하반절은 29상반절에 대한 설명이자 근거로서 기능한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한 것이다. 서사 흐름이 이 문장에 의해 단절되었다가 30절에 다시 이어지므로 괄호를 썼을 것이다. NTG²⁸, 그리고 다른 국역들은 이 구절에 괄호를 치지 않았다. 몇몇 영역본은 『개역개정』과 동일하게 29하반절에 괄호를 붙였다(ESV, NRSUE). 한편, KJV에는 하반절뿐 아니라 상반절부터 괄호가 쳐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괄호의 취지에 더 부합한 것 같다.

단, 귀신이 사로잡은 비참한 상황에 대한 설명은 이미 27절에도 제시되었다. 29상반절을 괄호에 넣으려면, 27하반절도 넣어야 일관되지 않을까? 또한 이 어구 역시 괄호 없는 다른 국역을 읽어 보면, 괄호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3.3.3. 누가복음 23:51상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그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한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고, 그것을 수습해다가 무덤에 안치했다. 그의 이런 행동을 서술하기 전, 복음서 저자는 먼저 요셉이라는 인물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50-51절). 요셉이 공회에서 예수의 처형에 반대했었다는 정보도 그중 하나이다(51상반절). 이 정보는 그가 왜 용감하게 사형수의 시신을 요구해서 매장까지 했는지를 설명하는 근거일 수 있다.

하지만 그래서 51상반절에서 괄호를 지울 수도 있다. 그 문장이 서사 흐름을 방해하는 ‘탄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흐름을 따라가도록 돕는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여기 괄호를 붙이지 않은 다른 역본들이 오히려 더 쉽게 읽히기도 한다. ERV에도 괄호 어구로 되어 있으므로 『성경 개역』이 그것을 따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구절에서 NTG²⁸은 줄표를 붙였고 국역 중 『새번역』과 『새한글』도 그렇게 했다. 영역본 대부분에는 괄호가 없다.

3.3.4. 요한복음 7:39하반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는 (아마 성전에서) 외쳤다. “나를 믿는 자는 …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38절). 이 외침에 대해 복음서 저자가 직접 덧붙인 해설이 39절이다. 이 해설은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생수의 강’이 곧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39상반절), 그리고 예수의 지상 사역 동안에는 아직 성령이 신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39하반절). 둘 다 성령에 관한 서술이지만 전자는 초시간적 상황을, 후자는 일정한 시간적 한계 내에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두 문장에 모두 어조사 γάρ가 들어 있기 때문에¹⁷⁾ 39상반절은 38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39하반절은 39상반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사의 흐름을 끊고 들어 온 지점은 39하반절이 아니라 상반절이다. 괄호를 붙이려면 거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만약 상반절에 괄호를 붙일 필요가 없다면 하반절에 붙은 괄호도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이 구절에는 NTG²⁸은 물론 국역과 외국어 역본 어디에도 괄호가 붙어 있지 않다.

17) 이 어조사(particle)는 직접적인 원인을 서술하기보다 드러난 현상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문장을 이끈다.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London: Hodder & Stoughton, 1919), 1190.

3.3.5. 요한복음 20:9

이 구절은 요한복음 부활 기사的一部分이다.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었다”(8절). 그리고 나서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다(10절). 이때 복음서 저자는 이 부분을 읽는 독자가 품을 법한 의문을 떠올렸을지 모른다. 두 제자는 왜 그제야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 그전에는 왜 믿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에 저자가 답하는 내용이 9절이다. 다시 말해서, 빈 무덤 목격이라는 서사에서 잠시 빠져나와 제자들의 불신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괄호를 붙일 만하다. 흥미롭게도, 『새번역』과 『새한글』에서 9절은 8절에 대한 설명으로가 아니라 10절에 대한 근거로 읽힌다(둘 다 괄호 없음).

다만, 요한복음 다른 곳에 이 어구와 유사하게, 제자들이 특정 시점 이전에 믿지 못하다가 그 이후에는 믿게 되었다는 저자의 언급이 있는데(요 2:11, 22) 거기에는 괄호가 없다. 또, 이 구절에 NTG²⁸은 아무 부호도 붙이지 않았고, 역본 중 유일하게 NIV가 괄호를 쳤다.

3.3.6. 사도행전 1:18-19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 어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유다에게 일어났던 불행한 일을 회고한다. 그는 유다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고 그것인 다윗을 통해 미리 말해진 바의 성취라고 전제한다(16절). 그는 본래 사도 중 일원이었다(17절). 베드로는 유다의 배반 행위 자체를 상술하지 않고 곧바로 배신 이후 그가 받을 산 일,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죽은 일, 그리고 그 발이 ‘피발’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일을 묘사한다(18-19절). 이어서 그는 시편 69편을 인용한다(20절). 16-20절의 핵심 주제는 성취이고, 그 성취의 구체적 양상을 서술한 것이 18-19절이다.

미시적으로는 18-19절이 16절의 근거 제시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18-19절에 괄호를 꼭 붙여야 하는 건 아니다. 16-17절에서 20절로 바로 넘어가면 오히려 흐름이 어색하다. 중간에 구체적 서술이 들어가야 ‘성취’ 주제를 증명할 수 있다. 18-19절이 논리적 흐름을 구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사인 셈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괄호를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NTG²⁸과 세 국역(『공동』, 『새번역』, 『새한글』)에는 이 구절에 괄호가 없고, 세 영역본(NIV, ESV, NRSUE)에는 있다.

3.3.7. 로마서 2:14-15

바울은 율법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과 마

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다(12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올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올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13절)라는 명제를 던진 후 그 명제가 성립할 수 있는 정황적 증거를 서술한다. 유대인이 가진 올법을 이방인은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본성으로 올법의 일을 행할” 수 있다(14절). 그런 사람에게 그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 그 마음에 새긴 올법의 행위를 나타낸다”(15절). 이 두 구절은 실제로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이라기보다, 이방인이 올법 없이도 의롭게 될 가능성 혹은 원리를 설명했다.

이 두 구절이 논증의 흐름을 멈추게 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14-15절은 13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논증이다. 굳이 논증 흐름의 단절을 따진다면 13절부터라고 말해야 한다. 12절의 심판 선언이 16절에서 “심판 하시는 그날”에 대한 묘사로 이어지고 중간에 들어간 13-15절이 통째로 그 흐름을 벗어나 있다. 만약 12절에서 13절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14-15절도 본문에 통합될 만하므로 괄호를 붙일 필요가 없다. 이 구절도 바로 앞 요한복음 20:9처럼 거의 모든 역본에서 괄호가 보이지 않는다.

3.3.8. 골로새서 2:21-22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은 이른바 ‘골로새 이단’을 논제의 중심에 놓고 신자들에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거부하라고 경계한다(8절). 그는 20절에서 다시 한번 “세상의 초등학문”을 거론한다. 그것을 따르는 것은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규례’의 구체적인 예시가 21절에 주어진다. 접촉과 취식에 있어서 금기사항들이다. 22상반절은 그런 금기사항이 “한때 쓰이고 없어질” 일시적 효능만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어지는 22하반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20절에서 언급한 두 가지 개념과 병행한다.

논리적으로 볼 때, 20-21상반절은 주된 흐름을 잠시 끊는 효과가 있다. 21절은 20절의 예시이고, 22상반절은 21절의 성격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이유에서 괄호를 붙였다면, 이어지는 23절에도 괄호가 붙어야 한다. 23절은 20-22절에 언급된 것들을 왜 멀리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이유 제시절이다. 하지만 이유를 제시한다고 해서 항상 괄호가 필요하지는 않다. 명령과 그 명령의 근거는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ERV에는 22상반절에만 괄호가 붙었고, 『성경 개역』과 『개역한글』이 그것을 답습한 것 같다. 그것이 21절까지 당겨진 것은 『개역개정』이 처음이다.¹⁸⁾ NTG²⁸과 다른 국역본, 영역본에는 대부분 괄호가 없다. ESV는 22상

반절에 괄호를 치고, 21절부터 22상반절까지 줄표로 묶었다.

3.3.9. 데살로니가후서 1:10하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의 다시 오심과 그때 벌어질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을 예언한다. 한편으로 불신앙, 불순종에 대해 형벌이 내려진다(8-9절). 다른 한편으로 신앙 때문에 환난 받는 “믿는 자”들은 안식을 얻고(7절),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놀랍게 여길 것이다(10상반절). 이때 이 편지의 수신자들(“너희”)은 “믿는 자” 그룹에 속할 것인가? 이 질문이 상반절 행간에 숨겨진 전제이며 그것에 대한 이유가 10하반절이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증거가 너희(그들)에게 믿어짐”으로써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영적 변화를 설명한다(11-12절).

논리 흐름상 10하반절은 상반절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 설명이 아니라, 상반절과 하반절 사이에 숨겨진 전제에 대한 이유 설명이다. 그 전제를 드러내지 않은 채 10하반절을 “... 믿어졌음이라”라는 유사-이유 구문으로 번역하면 논리적 공백이 생긴다. 다른 국역들은 이 문제를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해결했다. 즉, 그냥 평서문으로 서술하거나(『새번역』),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숨겨진 전제를 끄집어내서 보충해 주었다(『공동』, 『새한글』). 『성경 개역』 개역자들은 아마 ERV에 있는 괄호를 그대로 따라 붙였을 것이다. 그 외에는 괄호를 가진 본문이나 역본이 없다. 결론적으로 이 어구에 괄호는 불필요하다.¹⁹⁾ 오히려 괄호가 없어야 이어지는 11-12절과 논리적 흐름이 자연스럽다.

3.3.10. 디모데전서 3:5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의 직분에 관한 지침을 주고 있다. 바울은 개인 생활과 성품에 대한 몇 가지 기준에 이어 가정에서의 리더십을 언급한다.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의 행실까지 모범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4절). 그리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기 전, 방금 했던 말에 대한 일

18) 『개역개정』 개정자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역본 중 거의 유일하게 골 2:21부터 괄호가 시작하는 KJV를 그대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영어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22하반절에 구문론적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우리말 22하반절에는 서술어에 호응하는 주어다 없다. 21절이 괄호 속에 있지 않을 때는 22하반절에 연결되면서 호응 문제가 무마되었다. 하지만 21절이 괄호로 들어감으로써 22하반절에서 문제가 더 크게 불거졌다.

19) 이 문제와 별개로, 현재 『개역개정』의 괄호 어구는 자체적인 문제가 있다. 괄호 어구 바로 앞에 “이는”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성경 개역』과 『개역한글』에 없던 말이다. 아마 이유 제시임을 더 명확히 하려고 『개역개정』 개정자들이 첨가했을 텐데, 그러려면 괄호 속으로 집어넣어야 했다.

종의 논리적 근거 또는 원리를 제시한다. 자신이 속한 더 작은 단위인 가정을 못 다스리면 더 큰 단위인 교회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이다(‘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와 유사한 원리). NTG²⁸은 예외적으로 이 구절에 괄호를 쳤다.²⁰⁾ 다른 국역들도 괄호를 치거나 줄표를 붙였고, 영역본 NIV에도 괄호가 있다.

하지만 정말 5절에 괄호가 필요한가? 2-4절에서 단순 목록을 나열하다가 5절에서 바로 앞 항목에 대한 논리적 근거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과격이 나타나기는 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6절과 7절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6상반절)라는 항목에 이어 왜 그래야 하는지 근거가 나오고(6하반절),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7상반절) 근거가 따라 나온다(7하반절). 그러니까, 5절에 괄호를 붙이려면 6하반절, 7하반절에도 붙여야 일관된다. 뒤집어 말하면, 같은 논리적, 구문론적 기능을 하는 다른 두 어구에 괄호가 없으므로 5절에 괄호도 지을 수 있다.

3.3.11. 히브리서 7:11중반

히브리서 저자는 7장에서 멜기세덱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면서 율법에 따른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예수를 대조한다. 우선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정립하고 나서(1-10절), 저자는 레위 계통 제사 직분에 내재된 본질적 약점을 파고든다(11절). 그것은 제사 직분의 효능의 문제다. 결국 제사 직분의 효능은 그것에 따라 드러지는 제사의 효능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들고 나오는 백성들에게 그 제사가 효력을 발휘할 것인가? 그 제사를 통해 백성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11중반절,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음이라”는 관계대명사절이며, 그 안에 어조사 γάρ가 들어 있어서 바로 앞 11상반절에 대한 설명과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11상반절은 조건절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부정 서술문이다.²¹⁾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은 백성”, 다시 말해서 “레위 계통 제사 직분에 따라 속죄 제사를 바치는 백성”이 양심의 온전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²²⁾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

20) 신약 전체에서 NTG²⁸에 괄호가 쳐진 구절은 딘전 3:5와 골 4:10, 둘 뿐이다.

21) 11절은 그리스어 조건문 구문 중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present counter-factual condition)에 해당한다.

22) “이 지점에서 명백하게 히브리서는 율법을 주로 제의적 관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H. W. Attridge, *The Epistle to the Hebrews: A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Hebrew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9), 199-200.

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11하반절).

논리적 흐름상 11중반절은 11상반절과 합쳐서 조건문의 조건절(protasis)을 형성하고, 11하반절이 주절이 된다(apodosis). 11중반절을 11상반절과 분리된 문장으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조건문의 구조가 망가진다. 우리말 구문에는 관계대명사가 없기 때문에 더욱 11중반절을 옮기기가 어렵다. 관계대명사절을 독립된 문장으로 만들어서 조건문 밖으로 빼내거나 아니면 괄호를 치는 방법밖에 없다. 국역 중 괄호를 없앤 『새번역』과 『공동』은 전자의 방식을 택했고, 그중에서도 『공동』이 더 잘 읽힌다.²³⁾

『개역개정』의 괄호 어구는 어느 정도 정당성을 지닌다. KJV와 ERV도 괄호를 가지고 있다. NTG²⁸에는 없지만 영역본들은 대부분 괄호나 줄표를 붙였다. 다른 국역, 특히 『공동』은 괄호를 지우고 어순을 바꾸어서 더 읽히기 쉽게 번역했다.

3.3.12. 히브리서 7:19상반

히브리서 저자는 17절에서 멜기세덱 기독교론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그것으로부터 신자가 누리는 실질적인 복을 서술한다. 저자는 먼저 “전에 있던 계명”의 연약성, 무익성, 그리고 일정한 시점에 폐지될 수밖에 없는 한시성을 전제한다(18절). 율법의 그런 특성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함”이다(19상반절). 동물 제사를 통한 속죄의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말이다. 이 부분이 괄호로 묶여 있다. 19상반절은 18절의 예시 혹은 가시적 결과이다. 주된 논증의 흐름이 18절에서 19하반절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9상반절은 중간에 끼어든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괄호는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 이 구절에서 ERV에 괄호가 있으므로 『성경 개역』이 그것을 답습했을 가능성이 있다. NTG²⁸은 줄표를 붙였고, 대부분 영역본이 괄호를 쳤다.

하지만, 『개역개정』 외 다른 국역들은 모두 괄호 없이 본문에 통합시켰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9하반절을 상반절의 결과 또는 대안인 것처럼 옮겼다. 그래서 괄호 없이 읽더라도 논증 흐름이 끊기지 않고 오히려 탄탄하게 이어지는 느낌을 준다.

23) 『새한글』은 그리스어 원 본문의 조건문 구조를 파괴해 버렸다. 관계대명사절을 독립 문장으로 옮기기는 했는데, 그 위치를 바꾸지 않고 원래 있던 자리에 두었기 때문이다. “레위 계통 제사장직을 통해서 백성이 완전함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해 봅시다. 백성은 레위 계통 제사장직을 바탕으로 율법을 받았지요. 그러면 이른바 아론의 경우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라 다른 제사장을 세울 무슨 다른 필요가 더 있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번역문 자체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게 되어 버렸다.

3.3.13. 히브리서 7:21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 기독교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부분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레위 계통 제사장들과 그리스도는 대비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중 하나가 제사장 임명 과정에서 맹세의 유무이다. 저자는 20절에서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니”라고 단언하고 나서 21절에서 예수와 레위 계통 제사장들이 맹세에 있어서 어떻게 대별되는지를 성서적 근거(시 110:4)로써 설명한다. 그리고 22절은 대제사장과 맹세라는 주제를 받아서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변환한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1절이 괄호로 묶임으로써 22절의 “이와 같이”를 20절에서 바로 이어지게 만든다. 하지만 그런 논증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바꾸어 말하면, 21절은 논리적 흐름을 끊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와 같이”가 가리키는 내용이 21절이기 때문에 20절과 22절을 이어주는 필수적인 논증이 된다. 『성경 개역』이 여기 괄호를 붙인 이유가 그것의 대본인 ERV 때문이 아닌가 의심된다. 그 외에는 괄호를 붙일 정당성이 약해 보인다. 당연하게도 이 구절에는 그리스어 본문과 모든 역본에서 괄호가 사용되지 않았다.

3.3.14. 히브리서 10:8하반

7장에서 시작한 대제사장 기독교론은 새 언약(8장), 천상의 성소(9장)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유효하고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9-10장)로 이어진다. 옛 언약, 즉 율법에 따른 동물 희생 제사와 그리스도가 자신을 제물로 바친 제사를 대비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0:5부터는 성서 구절의 인용과 주석이 전개된다. 인용된 구절은 시편 40:6-8이다. 히브리서 10:8-9상반은 두 번째 인용부에 해당하는데, 중간에 낀 8하반절은 시편의 인용구가 아니고 시편 40:6-7에 대한 일종의 주석이다. 하나님은 시편에 언급된 각종 희생 제사를 폐하실 것이다.

히브리서 10:8하반이 단지 앞말에 대한 주석이라는 이유로 괄호를 칠 필요는 없다. 시편 40편의 세 구절은 히브리서의 절 구분을 통해 이미 둘로 끊긴 상태이다. 또 저자는 각 인용구 사이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 다 하셨고 …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 다 하셨으니” 같은 말을 써서 시편 40:6-8을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인용했다. 것처럼 인용구를 끊어서 읽는 것이 저자의 의도라면 히브리서 10:8하반에서 괄호를 지워도 변하는 건 없다. 이 구절에서 『성경 개역』이 ERV의 괄호를 답습했을 가능성이 있다. NTG²⁸, 『새번역』, 『공동』에는 괄호가 없다. ESV는 줄표, NIV와 NRSUE는 괄호를 쳤다.

3.3.15. 베드로후서 2:8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거짓 선생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경고하면서 2장을 시작했다. 성경에 기록된 과거 심판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노아 때 홍수 심판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재로 만든 심판을 언급한다(4-6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롯이 고통받았다(7절). 롯처럼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짐받고, 반대로 불의한 사람, 특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심판 때 형벌을 받을 것이다(9절). 8절은 롯이 어떤 방식으로 고통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7절에 딸린 부차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9절로의 논리 흐름을 지체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 구절에서 『성경 개역』의 괄호는 ERV에서 유래했을 수 있다. NTG²⁸, 그리고 다른 국역에는 괄호가 없지만, 영역본들은 대부분 괄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괄호 없는 국역들에서 7-8절이 더 깔끔하게 하나의 의미 단위를 구성하는 것처럼 읽힌다. 그리고 나서 『개역개정』을 읽으면 오히려 괄호가 7-8절의 연결을 방해한다는 느낌을 준다.

종합하면, 지금까지 검토한 괄호 어구 15개는 어조사 γάρ, ὅτι 또는 관계대명사절과 같은 구문을 사용해서 앞말에 대한 근거나 이유를 제시한 문장들이다. 그 어구들은 주된 문장 흐름을 끊고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삽입구임을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는 괄호가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어구가 포함된 문맥을 두루 살펴보면 그 어구들이 논증의 흐름을 방해하기보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대부분 어구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다시 논증의 흐름으로 복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기도 하다. 여러 구절에서 『성경 개역』의 괄호는 단순히 저본(ERV)을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많은 경우, 그리스어 비평 본문이나 다른 최신 역본들에는 괄호가 없다. 괄호 없이도 독해에 아무 지장이 없거나 오히려 더 잘 읽히기도 한다.

4. 괄호 어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개역개정』 신약의 괄호 어구 42개 중 29개를 범주별로 나누어 검토했다. 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개역개정』 신약의 괄호 어구 검토 결과

범주	괄호 어구	괄호 유지	괄호의 위치 또는 범위 조정	괄호 삭제
역주 (10개)	막 15:22중; 요 1:38하, 41하, 42하; 9:7중; 19:13중; 19:17중; 20:16하; 행 4:36중; 13:8중	가능	필요	바람직
방백 (4개)	마 24:15하; 막 13:14중	가능	필요	바람직
	딤후 1:18상; 히 11:38상	가능	불필요	가능
근거 (15개)	막 7:3-4	가능	불필요	바람직
	눅 8:29하	지양	필요	바람직
	눅 23:51상	가능	불필요	가능
	요 7:39하	가능	필요	바람직
	요 20:9하	가능	불필요	가능
	행 1:18-19	지양	불필요	바람직
	롬 2:14-15	지양	필요	바람직
	골 2:21-22상	가능	필요	바람직
	살후 1:10하	지양	불필요	바람직
	딤후전 3:5	지양	필요	바람직
	히 7:11중	가능	불필요	바람직
	히 7:19상	가능	불필요	바람직
	히 7:21	지양	불필요	바람직
	히 10:8하	바람직	불필요	가능
벧후 2:8	가능	불필요	바람직	

역주 기능을 하는 괄호 어구들은 모두 괄호를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괄호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가능’) 그럴 경우 괄호의 범위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방백 기능을 하는 괄호 어구 중 첫 두 개는 역주 어구들과 같은 기준으로 다루면 되고, 다른 둘은 괄호 유지와 삭제의 장단점이 비슷하다. 근거 기능을 하는 15개 어구 중, 12개에서는 괄호 삭제가 ‘바람직’하

다. 그중 6개 구절(눅 8:29하; 행 1:18-19; 롬 2:14-15; 살후 1:10하; 딤후 3:5; 히 7:21)의 괄호는 유지를 ‘지양’(止揚)해야 한다. 즉, 되도록 괄호를 지우는 쪽으로 검토해야 한다. 히브리서 10:8하반의 괄호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가복음 23:51과 요한복음 20:9하반의 괄호 어구는 유지와 삭제의 장단점이 비등하므로 어느 쪽으로 정하든 상관이 없겠다.

5. 나가는 말

이 연구는 『개역개정』 신약에 나오는 괄호 어구 42개의 필요성 혹은 유용성을 검토하여, 향후 새로운 국역이나 개정역에서 개별 괄호 어구마다 괄호를 유지, 수정, 혹은 삭제할 것인지를 제안한 연구이다. 우리는 먼저 괄호 어구가 언제,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추적했다. 괄호는 『개역개정』 개정자들이 붙인 것이 아니다. “(없음)”을 포함한 57개의 괄호 어구가 『성경개역』에서 『개역한글』을 거쳐 『개역개정』에 반영되었다. 『성경개역』 개정자들이 괄호 어구를 얻은 원천은 KJV, ERV, 그리고 그리스어 대본인 NTG¹²였을 것이다(특히 ERV).

그렇다면 이 괄호 어구를 검토할 때 우리는 어떤 이론적 틀 혹은 토대를 채용해야 할까? 고대 필사본들 중 어디에도 괄호를 포함한 문장 부호가 없었다는 전제 위에 현대 역본에서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이 고민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개역개정』의 특수한 역사적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98년 출판된 역본임에도 다른 문장 부호를 일절 사용하지 않은 데는(하지만 괄호는 사용되었다!) 『성경개역』의 지대한 영향이 있었다. 하지만 『성경개역』이 번역되고 출판된 시대에 우리말의 문체나 인쇄 방식이 지금의 그것과 매우 달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거의 백 년 전 언어생활에서 용인되던 방식을 앞으로 한 세대 동안 사용할 성서 국역에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한편, 성서 국역이 역본인 한에 있어서 최신 비평 원문(NTG²⁸)이야말로 가장 염두에 두어야 요소이다. NTG²⁸에는 여러 가지 본문 부속 요소들이 있고 그중 하나가 괄호와 줄표이다. 특히 줄표의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렇다면, 국역에도 괄호보다는 줄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원문 충실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국역 성서가 우리말로 하는 작업인 한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말 어문 규정이다. 괄호의 사용에 있어서 되도록 어문 규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되, 성서의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어문 규정에 없는 용

범이라도 고안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원론적 고려 사항 위에 우리는 42개 괄호 어구를 구문적 기능에 따라 5가지 범주로 나누었다(역주 제시, 방백, 근거 또는 설명 제시, 부대 상황 묘사, 세부 사항 묘사). 출판 분량의 제한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그 중 첫 세 범주(29개)만 다루었다. 기본적으로 작업의 방향은 개별 어구들이 속한 근접 문맥과 광역 문맥, 또는 수사적 특징들을 두루 검토하면서, 거기에 왜 괄호가 붙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괄호를 통해 독자가 해당 구절을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당연히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 만약 괄호가 없는 것이 더 쉽게 읽힌다면 삭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나저러나 큰 차이가 없거나, 장단점이 비등한 경우도 많았다. 그럴 때 다른 역본들을 대조해 보면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고, 원론적으로는 원 본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일 수도 있다.

<주제어>(Keywords)

괄호 어구, 『개역개정』, 역주, 방백, 근거 제시.

Parenthetical phrases, NKRV, Translatory Comments, Asides, Causal Explanations.

(투고 일자: 2025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25년 8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8월 30일)

<참고문헌>(References)

- 『공동번역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
- 『새한글성경』,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4.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2005.
-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 『성경전서』, 서울: 성서공회, 1911.
- 『성경 개역』, 서울: 성서공회, 1938.
- 국립국어원, 『문장 부호 해설』, 서울: 국립국어원, 2014(전자매체본, 2015),
https://www.korean.go.kr/front/etcData/etcDataView.do?mn_id=46&etc_seq=431.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 번역, 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2025.
- 옥성득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3권 - 밀러 서신』,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 Aland, B. et al., eds., *Novum Testamentum Graece, Based on the Work of E. and E. Nestle*, 28th Revised Edition,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 Allen, G. V., *Manuscripts of the Book of Revelation: New Philology, Paratexts, Recep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 Attridge, H. W., *The Epistle to the Hebrews: A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Hebrew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9.
- Collins, A. Y., *Mark: A Commentary*, Hermeneia: a Critical and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 den Hollander, A. Schmid, U., and Smelik, W., eds., *Paratext and Megatext as Channels of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the Textual Markers of Contextualization*, Leiden: Brill, 2003.
- Goswell, G., *Text and Paratext: Book Order, Title, and Division as Keys to Biblical Interpretation*, Bellingham: Lexham Academic, 2023.
- Holmes, M. W., ed., *The Greek New Testament: SBL Editio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0.
- Jongkind, D., et al., eds., *The Greek New Testament, Produced at Tyndale House*, Wheaton: Crossway Book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 Marcus, J., *Mark 8-1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Nestle, E., *Novum Testamentum Graece cum apparatu critico ex editionibus et libris manu scriptis collecto. Editio duodecima recognita*, Stuttgart: Privilegierte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923.

Porter, S. E., Stevens, C. S. and Yoon, D. I., eds., *Studies on the Paratextual Features of Early New Testament Manuscripts: Texts and Editions of the New Testament*, Leiden: Brill, 2023.

Robertson, A. T.,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London: Hodder & Stoughton, 1919.

<Abstract>

**An Examination of Parenthetical Phrases in the New Testament
of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Cases of Translatory Comments, Asides, and Causal Explanations**

Jaecheon Cho
(Jeonju University)

This study is an attempt to investigate the statistics, origin, and syntactical functions of all 42 parenthetical phrases in the NT of NKRV(1998), so that the revisers of NKRV may make informed decisions on what to do about them in the next version of the Korean Bible. In our analyses, 42 phrases are categorized into five groups: translatory comments (10), asides (4), causal explanations (14), descriptions of concurrent situations (11) and presentations of detailed information (3). In terms of origin, it could be argued that about 80% of them came from the Greek text of the NTG¹² or a couple of English versions available to the revisers of the Korean Revised Bible (KRB) of 1938 (KJV and ERV). Consideration of the historical circumstances of the KRB is important because NKRV is a partial revision of KRV (1956), which is in turn a partial revision of the KRB. Most of parenthetical phrases in KRB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NKRV, which justifies taking KRB into account when studying the origin of the NKRV's parenthetical phrases. The other three major Korean versions, KCB(1977), NKSV(2004), and NKT(2024) are factored in our study as well, along with NTG²⁸ and three major English versions (NIV, ESV, and NRSUE). In this article, we evaluated 29 of the 42 phrases based on their syntactical functions: translatory notes (10 times), asides (4 times), and causal explanations (15 times). In order to decide whether or not we keep the parentheses, we should first read the text with the parentheses, and then without them. If, and only if, the parentheses help understand the text better, they are worth keeping. Otherwise, we should follow the original text, which does not have any parenthesis whatsoever. Upon our study, we found that the parentheses may well be removed in all of ten parenthetical phrases containing translatory notes. Out of the four phrases functioning as asides, two may retain parentheses, while the other two are better without them. Similar results are drawn from the fifteen

causal explanations: most of them read better without parentheses while some may or may not retain them. Only one passage (Heb 10:8) reads better with the parentheses. If we want to keep the parentheses as they are, several passages require the parentheses to be moved to elsewhere in the sentence order. A more desirable solution to this issue is simply to follow the critical text, i.e. NTG²⁸ in terms of the kind and location of parentheses.

『개역개정』 괄호 어구	NTG ²⁸ (2012)	『공동』 (1977)	『새번역』 (2003)	『새한글』 (2024)	NIV (2011)	ESV (2025)	NRSUE (2021)	LB (2017)
딤후 3:5	괄호	괄호	괄호	줄표	괄호			
딤후 1:18상						줄표	줄표	
히 7:11중					줄표	괄호	줄표	줄표
히 7:19상	줄표				괄호	괄호	괄호	줄표
히 7:21								
히 10:8하					줄표	괄호	괄호	
히 11:38상						줄표	줄표	
벧후 2:8					괄호	괄호	괄호	
계 20:5상				괄호	괄호		괄호	